

# Emily Dickinson의 시에 나타난 죽음과 불멸의 주제

최주미\*

## 목 차

- I. 서론
- II. 죽음의 실체와 경험
  - 1. 관찰을 통한 죽음의 실체
  - 2. 상상을 통한 죽음의 경험
- III. 불멸에 대한 인식과 추구
  - 1. 불멸에 대한 인식
  - 2. 불멸의 추구
- IV. 결론

## I. 서론

에밀리 디킨슨 (Emily Dickinson)은 청교도적 정신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와 실증주의가 점점 싹트기 시작하는 시대에 살았던 미국의 여류 시인이다. 디킨슨은 매우 단조로운 삶을 살았지만, 은둔생활은 충실한 내면의 성찰을 할 수 있게 했고 그녀의 창작활동을 풍요롭게 해 주었으며 반생애 동안 전적으로 시 창작에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석사과정

몰두함으로 1775편의 시와 1049여 편의 편지글과 산문을 남길 수 있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는 주로 크게 자연·사랑·죽음·불멸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그녀의 시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 시의 주제는 죽음과 불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녀가 쓴 1775편중에서 600편이 넘는 시가 죽음을 다룬다는 점이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강한 집착을 뒷받침해 준다. 디킨슨은 죽음의 탐구와 더불어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여겨지는 불멸에 대해 알아내고자 한다. 앤더슨(Charles R. Anderson)의 지적에 의하면 죽음과 불멸이 그녀의 시적 능력에 도전하는 심오한 주제<sup>1)</sup>가 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디킨슨의 대부분의 시는 직·간접적으로 죽음에 대한 사색과 관찰로 이루어지며 죽음에 대한 디킨슨의 남다른 관심은 그녀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녀가 삶 속에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추구한 죽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우선 디킨슨이 죽음과 불멸에 대한 주제의식을 갖게 된 배경을 간과할 수 없다. 디킨슨이 태어나고 자란 암허스트(Amherst) 청교도주의 사상이 그 당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던 고장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그녀의 시에서 죽음의 주제에 끊임없이 드러나게 된 큰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디킨슨은 죽음을 내세의 것으로 여기고 종교적 구원과 연결시키는 그 당시의 종교적 관점의 죽음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 디킨슨에게 죽음은 피할수 없는 현실 그 자체이며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버리는 고통스러운 상실의 경험일 뿐이다.

디킨슨이 종교적 회의를 느낄 무렵 19세기초반에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또한 에머슨(Ralph Emerson)의 초월주의가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이 사상은 디킨슨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에머슨의 작품을 통해서 초월주의의 자기충족과 자기 신뢰의 태도를 갖게된다. 또한 디킨슨이 죽음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그녀가 살던 집 앞에 공동묘지가 무수히 많았다는 지리적 배경도 간과할수 없다. 디킨슨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은 그녀에게 깊고 진지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 편지나 시에 중심적인 주제로 나타난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누구나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관심사이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미지의 대상이자 신비의 영역이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과의 단절이며 운명적인 것이다. 죽음에 대한 관심은 불멸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은 불멸의 세계를 보고자 한다. 하지만 불멸 또한 죽음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정의를 내릴수 없어 존재가 불

1) Charles R. Anderson, *Emily Dickinson's Poetry: Stairway of Surpris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p. 230.

투명하고 모호해서 두려움이자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디킨슨은 더욱더 불멸의 바로 전 과정이라 여겨지던 죽음을 파헤쳐 그것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려 한다. 또한 부정확한 존재인 죽음과 불멸에 도전하여 맞부딪혀 친숙해지려 하고 그 실체를 규명하려 무던히도 노력한다.

이처럼 그녀에게 죽음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죽음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여 쓰인 그녀의 시는 지금의 삶, 즉 현실에서 죽음을 직접 대면하고 실체를 밝혀 천상이 아닌 지상에서 영원의 불멸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집중된다. 즉, 삶 속에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추구하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죽음의 연속선상에 있던 불멸을 어떻게 추구하고자 하는지가 본 논문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 II. 죽음의 실체와 경험

디킨슨에게 있어서 죽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직·간접적 경험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인식의 결과이다. 특히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은 디킨슨에게 상실감과 슬픔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더욱더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이외에도 집 주변의 무수한 공동묘지가 있어 장례행렬과 장례식을 빈번하게 목격했던 것이 디킨슨에게 남다른 죽음의 경험을 만들어 준다.

디킨슨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경험은 인간으로서 가장 풀기 어려운 죽음의 문제에 맞부딪치게 함으로써 예술가로서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바탕이 된다. 말하자면 죽음은 그녀의 삶의 과정에서 그녀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만약 디킨슨의 시와 편지에 반복되는 죽음의 주제가 근원적으로 신경증적인 것에 기인한다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성숙한 시인과 사색가로서의 그녀의 관심은 실존적 현상으로서의 죽음과 핵심적 종교적 신비로서의 죽음이었으며, 죽음은 거의 임상 의사와 철학자의 객관적 태도로서 탐구되고 사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sup>2)</sup>

디킨슨은 주변에서 많은 이들의 수많은 죽음을 보게 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세밀하게 관찰하면서도 죽음의 공포나 불안에 동요되

2) Richard B. Sewall, ed. *Emily Dickins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3), p. 80.

지 않고 실존적 현상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죽음의 신비는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내세적 구원과 영원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지상 속에서 영원을 찾고자 한다. 그러므로 디킨슨은 이러한 죽음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서 예술가로서 죽음을 끊임없이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며, 나아가 자신의 의식의 영역을 통해 죽음을 상상해 보고 경험한다.

## 1. 관찰을 통한 죽음의 실체

그러나 디킨슨의 죽음의 시는 대부분 죽음의 경험이라기보다는 그녀 자신의 죽음에 대한 탐구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디킨슨은 거의 병적일 만큼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미지의 세계의 일원이 되는 순간을 포착하려는 열망으로 생사의 갈림길의 순간에 그녀의 관심을 집중시켰다.<sup>3)</sup>

디킨슨은 죽음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막연한 추측이 아닌 모든 각도에서 죽음의 현상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관찰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죽음을 인식하고자 한다. 이처럼 죽음을 사실적·객관적으로 파악하려했던 것은 당시의 실증적 과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디킨슨은 죽음의 외적양상을 관찰할 때는 그 이론의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 실험하고 분석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는 점점 사라지고 실체는 더욱 더 선명하게 디킨슨 앞에 나타나나게 된다. 앤더슨 역시 디킨슨의 죽음에 관한 시는 죽음에 대한 단순한 감정표현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추구과정이기애 이러한 집요한 집착은 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sup> 디킨슨의 관찰을 통한 과정은 먼저 주변사람들의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면서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심리적 육체적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디킨슨이 관찰하는 죽음의 현상은 시에서 공통적으로 얼음의 이미지나 돌처럼 결정화된 이미지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sup>5)</sup>

다음의 시에서 디킨슨은 죽어가는 육체적인 양상을 냉동과정으로 인식하여 죽음을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부각시키고 있다. 타인의 죽음에서 관찰되는 죽음의 현상이 얼음과 돌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따뜻했었지- 처음에는- 우리처럼

3) Anderson, p. 225.

4) Anderson, p. 228.

5) David T. Potter, *The Art of Emily Dickinson's Early Poetry* (Cambridge: UP, 1966), p. 25.

냉기가 이곳을 지나갈  
 때까지는- 유리잔에 맺힌 서리처럼-  
 장면이 모두-사라질 때까지는

이마는 돌이 되었고-  
 손가락은 너무나 차가워져서  
 통증을 없고 -그리고 스케이트장처럼  
 바삐 움직이던 두 눈도 - 얼었다-

'Twas warm-at first-like Us-  
 Until there crept upon  
 A Chill-like frost upon a Glass-  
 Till all the scene-be gone

The forehead copied Stone-  
 The fingers grew too cold  
 To ache-and like a Skater's Brook-  
 The busy eyes-congealed- (P. 519)<sup>6)</sup>

디킨슨은 죽음의 현상을 “냉기”, “서리”, “차가움”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과 주검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것”으로 지칭되고 있는 주검은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니다. 타인의 죽음을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있지만 처음에는 우리처럼 따뜻한 존재이다. “온기”가 있을 때만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이 찾아오면서 우리와는 다른 존재가 되어 차가움과 딱딱함이 자리하게 된다. 감각도 없고 더 이상 하나의 통일된 형체가 아닌 신체의 각 부분으로 뿔뿔이 흩어져 사람과의 모든 연관성과 유사성을 상실해버린다. 디킨슨은 타인의 싸늘하게 식은 시신을 대면하는 순간에 죽음의 과정을 육체가 “사물”처럼 싸늘하게 굳어 식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이제 육체는 완전히 응고되어버린 냉동체처럼 정지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연에서 죽은 사람의 외부적 모습이 “돌로 결정화되는” 과정은 죽음이 삶의 순간을 결정화시킨 것이다. 그녀에게 죽음의 의미는 삶의 과정에서 죽음을 통해 보석처럼 결정화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보석의 가치는 그것의 성분에 있지 않고 결정화에 있다. 다이아몬드조차 주로 탄소로 이루어지며, 이

6) 본 논문에 실린 모든 시는 다음의 원문내용과 일치하다. Emily Dickinson. *The Complete Poems of Emily Dickinson*, ed. Thomas H. Johnson.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82) 이하 인용은 Johnson이 사용한 고유번호를 그대로 인용하고 앞에 P를 붙인다.

불가사의한 변형 안에서만이 우리의 용광로의 검은 석탄과 구별된다. 그러나 정신적인 사람은 은혜로운 결정화를 통해 신성한 빛을 반사하는 보석이 되고.<sup>7)</sup>

디킨슨은 죽음이라는 외부적 현상을 통해 죽음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디킨슨은 죽음의 외부적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서 시인의 그러한 끈질긴 추구를 정당화시키고 결국에는 시인의 의도를 성취할 수 있는 결론으로 이끌어간다.<sup>8)</sup>

다음의 시에서는 죽음을 물리적 시각이 상실되는 것으로서 인식한다.

나는 죽어가는 눈동자를 보았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이-  
이리저리 굴리면서 방을 둘러보는-  
그리고는 이내 시야가 흐려지고-  
안개로 더욱 희미해지면서-  
그리고는 굳게 닫혀 버렸지  
보았던 축복이-  
무엇인지 드러내지도 않은 채로

I've seen a Dying Eye  
Run round and round a room-  
In search of something-as it seemed-  
Then Cloudier became-  
And then-obscure with Fog-  
And then-be soldered down  
Without disclosing what it be  
'Twere blessed to have seen- (P. 547)

디킨슨은 “죽어가는 사람의 눈” 즉, 죽어가는 사람의 눈동자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언급한다. 죽음을 추측에 의해 단정내리지 않고 죽었다는 묘사를 “보았던 축복이- 무엇인지 드러내지도 않은 채로” 라고 표현한다. 디킨슨은 죽어가는 이가 찾고 있는 것이 내세의 영원성을 얻게 되는 “축복”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눈동자는 “구름이 낀 듯”이 안개와 함께 몽롱해 지며 “눈”이 보았던 영원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눈꺼풀이 의지와 상관없이 닫혀 죽음을 맞이한다. 그녀는 “납이 녹아내려가는”듯이 죽어가는 시선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포착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고도의 의식을 얻

7) Sewall, p. 456.

8) Thomas H. Johnson, *Emily Dickinson: An Interpretive Biography*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P, 1955), p. 232.

는다고 생각했기에 죽음의 문턱에 있는 눈의 움직임과 반응을 관찰해 나감으로써 죽음의 신비에 대한 통찰을 얻으려 한다.<sup>9)</sup> 이처럼 타인의 죽음을 관찰하면서 소멸과 상실이라는 죽음의 속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디킨슨은 이러한 실체를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자체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인간의 유한성에서 죽음을 인식하고자 함을 다음 시에서 제시한다.

당신은 떠나서  
결코 돌아오지 아니 하려고 하시기에  
그리고 나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의 가신 길을 바라다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기에,  
이 순간은 유한성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Because that you are going  
And never coming back  
And I, however absolute,  
May overlook your Track—

Because that Death is final,  
However first it be,  
This instant be suspended  
Above Mortality— (P. 1260)

디킨슨에게 죽음의 순간은 삶의 유한성 위에 “매달려있는” 순간이다. 죽음의 의미를 만드는 것은 죽음 후의 순간이 아니라 죽음 바로 그 순간에 존재의 “유한성에 매달려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디킨슨은 존재의 유한성 자체는 죽음의 의미를 실존으로 연결시켜 현상세계를 일상사로 확장시켜놓고 있다고 본다.<sup>10)</sup>

즉 디킨슨은 또한 죽음은 삶의 유한함속에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 중 하나처럼 인식 될 수 있는 것으로 관찰 하고 있다.

그녀의 시 중에는 주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죽음이

9) Ibid, p. 168.

10) Sharon Cameron, *Lyric Time. Dickinson and the Limits of Genre*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9) p. 147.

가져다주는 여파를 묘사한 시도 있다. 다음의 시는 죽음을 관찰하여 얻은 이미지에서 고통을 관찰해낸 시이다. 디킨슨은 고통이 최절정으로 도달 하는 순간과 그에 이은 죽음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고통의 표정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진실 된 것임을 알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런 경련을 흉내 내지 않으며,  
임종의 고통도 흉내 내지 않습니다 —

눈이 한순간 흐려졌고 —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것을 꾸며내는 일은 불가능 합니다  
거친 고뇌로 생겨난  
이마 위의 구슬땀도 흉내 낼 수 없습니다

I like a look of Agony,  
Because I know it's true —  
Men do not sham Convulsion,  
Nor stimulate, a Throe—

The Eyes glaze once — and that is Death—  
Impossible to feign  
The Beads upon the Forehead  
By homely Anguish strung (P. 241)

그녀는 “고통의 표정”이 진실이기에 좋아한다고 고백한다. 사람들은 고통스런 경련을 흉내내지 않는다. 고통은 표정으로 표출되기에 숨길수도 통제 할수 없어 진실 그 자체이며 값진 것이다. 디킨슨은 최절정의 고통이 막 지나간 뒤의 순간을 포착한다. 죽을 때 느끼는 고통은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며, 그런 고통이야말로 인간이 살아 있음을 처절하게 느끼게 해주는 마지막 순간이다. 이 순간은 육체 안에서 “살아있는 것”과 “소멸되어가고 있는 것”이 함께 만나 공존하는 순간이기도하다. “눈”의 이미지를 통해 열린 동공이 서서히 축소됨을 보여 줌으로써 삶과 죽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마지막 신호임을 보여준다. 그녀에게 고통이란 삶에서 가장 정직한 표현이며 고통을 느낌으로써 살아있음을 느끼며 아울러 삶에 대한 강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디킨슨은 유한한 존재에서 인식되는 고통이란 삶의 과정에서 갑작스런 위기가 오는 죽음이라 여긴다. 그녀는 인간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피할수 없는 보편적 삶의 과정으로 수용할 때 삶의 한 과정속의 죽음으로 인식될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닌 현실로 이어지는 통로인 것



이다. 죽음이란 삶의 과정을 지나가는 통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디킨슨은 이 과정을 지나칠 때 마다 인간 존재의 진정한 가치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또한 타인의 죽음을 통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 또는, 인격의 상실로 파악하고 물체의 특성으로 죽음을 관찰하고 있다.

잠보다 더 고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은밀한 방에는!  
그것은 작은 가지를 가슴에 닮고 있으며 —  
이제 더 이상 그것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There's something quieter than sleep  
Within this inner room!  
It wears a sprig upon its breast —  
And will not tell its name ( P. 45 1연)

죽음은 극도로 고요한 “잠”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중성 대명사 “그것”과 “어떤 것”을 사용하여 인격이 상실되어있는 시신의 특징으로 연결 하고 있다. 시인은 시종일관 고요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디킨슨은 주검의 관찰을 통해 죽음의 실체를 벗기려 하지만 시인이 주는 일방적인 침묵으로 인해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죽은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알아내고 싶지만 조금 전까지도 살아있던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다. 결국 디킨슨은 “나는 그것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한다.”라고 표현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이처럼 인격체의 죽음은 같은 공간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린다. 디킨슨의 죽음에 대한 관찰은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이다.<sup>11)</sup>

디킨슨은 타인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죽음의 외부적 현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녀는 물리적 소멸과 상실이라는 죽음의 속성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죽음에 뒤따르는 고통을 그 자체로 수용하는 역설적인 중요성을 통해 죽음을 삶의 과정의 하나의 사소한 사건으로 인식하게 되며 삶의 끝이 아닌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분으로 인식한다. 디킨슨은 죽음의 부동성과 의식의 소멸을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지상태에서 시간의 개념을 지움으로써 무 시간 속에서 의식의 무한한 확장을 통해 죽음을 광활한 우주의 순환속의 삶의 한 과정이자 일부분으로 받아드린다.

11) Thomas W. Ford, *Heaven Beguiles the Tired: Death in the Poetry of Emily Dickinson* (Alabama: Alabama UP, 1968), p. 110.

## 2. 상상을 통한 죽음의 경험

디킨슨은 죽음을 실존적 현상으로 인식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상상적으로 경험한다. 디킨슨은 죽음의 경험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배경을 만들고 인물을 설정한다.<sup>12)</sup> 디킨슨은 실존적 현상 속에서 죽음의 속성과 가능성을 시험하고, 이러한 경험은 시 속에서 죽음의 속성인 소멸·상실로 인식되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 속에서 한계를 느끼기 보다는 상상을 통해 죽음을 예견해 봄으로써 자신의 의식이 죽음너머를 넘나드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의식의 확장은 시인으로서 예술적 순간을 창조하는 순간으로 작용한다. 디킨슨은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무한한 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상의 경험 속에서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식의 확장을 통해 영원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다음의 시에서 디킨슨은 죽음을 친절한 신사로 그리면서 죽음을 더욱더 친근한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죽음과의 여행을 통해 영원성을 인식한다.

내가 죽음을 위하여 멈춰줄 수 없었기에  
그가 친절하게도 나를 위해서 멈춰주었다.  
그 마차는 우리자신과  
불멸을 실었다.

우리는 천천히 달렸다— 그는 서두름을 알지 못했다.  
그의 정중함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나의 일과 여가 모두  
제쳐놓았다.

Because I could not stop for death—  
He kindly stopped for me—  
The Carriage held but just Ourselves—  
And Immortality.

We slowly drove—He knew no haste  
And I had put away  
My labor and my leisure too,  
For His Civility— (P.712 1,2연)

12) Richard B. Sewall, ed. *Emily Dickins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3), p. 717.

시인은 죽음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인이 죽음을 위해 멈출 수 없기에 죽음이 “친절하게도” 인격을 가지고 나를 위해 “멈추어”주었기 때문이다. 디킨슨은 죽음을 “정중함”을 가진 신사처럼 인식함으로써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생활을 제쳐놓고 죽음과 기꺼이 동행하고 있다. 죽음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그 마차에 타게 되고 그녀는 그 순간 안에는 “영원”이라는 동행자와 있음을 발견한다. “멈추어버린다”는 것은 흘러가는 유한의 시간이 끝나 버렸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순간의 정지가 불멸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결국 디킨슨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동행하는 순간 영원으로 향하는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 연에서는 죽음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삶의 순환과정을 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휴식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노는  
학교를 지났고-  
오곡이 응시하는 들판을 지났고-  
지는 해를 지나왔습니다-

We passed the school where Children strove  
At recess— in the Ring—  
We passed the Fields of Gazing Grain—  
We passed the Setting Sun— (P. 712 3연)

“나”는 죽음과 동행하여 마차를 타고 내가 거닐던 일상의 삶의 장면을 지나쳐 간다. 시간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장면들을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스치듯 된다. 이때의 일상의 장면들은 3단계의 순서를 거친다.. 첫 번째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때”인 어린 시절, 두 번째는 “곡식의 들판”으로 묘사되어진 성인시절, 세 번째는 “해질녘”으로 묘사되어지는 노년시절이다. 디킨슨은 현세를 등지고 세상을 떠나면서 등 뒤로 보이는 지난 삶의 장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시간적으로도 한낮의 학교에서 해가 질수록 점점 어두워 진다. 여기에는 삶의 주기가 담겨 있다. 유년시절의 청년에서 성년으로 다시 노년의 쇠락으로 이어진다. 결국 마차는 이 모든 삶의 주기를 지나 마지막으로 일몰을 지나치려 하는데, 그 찰나는 바로 시간을 초월하는 무시간의 순간인 것이다.

아니 오히려 해가 우리를 지나쳐 버렸다.  
이슬이 스며 차갑고 떨리는데  
얇은 명주와 겉옷과  
명주 망사와 솔만을 걸쳤기에-

Or rather—He passed Us—  
The Dews drew quivering and chill—  
For only Gossamer, my Gown—  
My Tippet—only Tulle— (P.712 4연)

4연에 “오히려 해가 우리를 지나쳐 버렸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우리를 지나쳐 갔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시간을 정복할 수 없고 오히려 시간이 인간을 지배하여 죽음에 순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3연에서는 태양이 있는 낮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지금은 밤의 세계로 바뀌어있다. 몸은 얇은 “명주겉옷”과 “명주 망사”만 걸쳐 있기 때문에 “이슬”이 끌며 잡아당기는 듯 추위를 느낀다. 3연까지의 밝음·생기·따뜻함·온기 등은 지금은 어둠·냉기·정지·한기 등의 대조적 이미지로 전환되어 있다.

우리는 땅이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집 앞에서 멈추었다.  
지붕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박공은 땅에 묻혀 있었다.

We paused before a House that seemed  
A Swelling of the Ground—  
The Roof was scarcely visible—  
The Cornice—in the Ground— (P.712 5연)

“땅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집”에서 “집”은 무덤을 나타내며 동시에 삶에서 죽음을 거쳐 불멸의 세계로 이어지는 지점이다. 1연에서 친절하게 내 앞에서 멈춰주었던 그 정지는 유한적 시간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반면 두 번째 무덤 앞에서의 정지는 죽음에서 영원의 불멸세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영원으로 나아가기전의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의미이다. 죽음을 극복해야만 궁극적인 불멸로 향할 수 있기때문에 무덤 앞에서의 정지는 불멸로 가는 통로이지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무덤이 최종목표가 아니라면 그녀가 그렇게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때 이후로 수세기가 지났지만  
처음에 말 머리들이 영원을  
향해 있다고 생각되던  
그날 보다 더 짧게 느껴진다.

Since then—'tis Centuries—and yet

Feels shorter than the Day  
I first surmised the Horses' Heads  
Were toward Eternity— (P.712 6연)

마지막 연에서 최종목적지는 바로 영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덤 앞에서의 일시적 정지는 영원의 삶의 움직임 보여줄 신호이기도 하다. 이순간 죽음이 불멸로 전환되어 영원과 불멸이 동일시된다. “말 머리들”은 영원을 갈망하는 시인의 의식을 보여준다. “말머리들이 영원을 향해 서있는” 순간, 움직임이 멈추어 물리적 시간의 개념은 사라지고 의식이 무한히 확장되어 영원처럼 인식된다. 결국 이 시에서 마차는 전진과 연속성을 상징하며, 그녀가 마차를 타고 경험하는 영원은 죽음의 경험과 동시에 맞물려 구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녀는 마차의 여행을 통해 죽음이란 삶의 연속과정 속에 일시적인 정지의 순간 일 뿐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

다음 시에서는 디킨슨은 일상적인 생활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되돌아 보는 상상을 한다

내가 죽은 때는, 작년, 바로 이맘때입니다.  
나는 들판을 지난 때—  
소리만 듣고도  
수염 난 옥수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내가 너무 높이 있어—  
내 양말이 너무 높이 달려있게 되고  
어떤 산타클로스도 닿을 수 없어  
크리스마스의 기쁨도 퇴색될 것입니다.

'Twas just this time, last year, I died.  
I know I heard the Corn  
When I was carried by the Farms—  
It had the Tassels on—  
.....  
And would it blur the Christmas glee  
My Stocking hang too high  
For any Santa Claus to reach  
The Altitude of me— (P. 445 )

화자는 자신의 죽은 시절을 회상한다. 가을의 추수는 모든 것이 무르익고 열매가 영근

성숙함과 쾌락을 의미한다. 반면에 우울, 동경과 같은 어두운 분위기를 동시에 담고 있다. 즉, 가을은 삶의 전성기와 끝을 동시에 의미한다. 여기서 “나”는 관속에 누워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운반되어지고 있다. “나”는 관속에 누워있지만 들판을 지날때 소리만 들어도 “수염 난 옥수수”라는 것을 알수있다. 어서 나가 가을의 추수를 함께 나누고 싶지만 관속에 갇힌 존재라 그럴 수 없다. 그녀의 가족 또한 추수의 기쁨을 역시 그녀와 함께 누리고 싶어 접시를 더 내어 놓음으로써 추수감사절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려 한다. 하지만 슬픔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또한 그녀가 “크리스마스”에 걸어 놓았던 “양말”을 회상하며 현세의 소소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지금의 모습에 한탄한다.

죽은 나는 지상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회상하며 남겨진 가족의 걱정으로 현세에 대한 집착을 떨치지 못한다. 내세의 삶을 선택하기에 현세에서 포기해야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러기엔 소중한 추억들과 그리움이 많다. 결국 디킨슨은 죽음에 대해 내세에서의 삶이 지상의 삶에 대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되면서 현세에서의 삶에 더욱 가치를 두고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다.

디킨슨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급·지위·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한번은 맞부딪쳐야 할 죽음에 대해서 어떤 존재이며 그것의 연속선상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 그녀는 죽음의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으로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기 위해 현미경을 물체에 대고 관찰하듯 다양한 관점에서 죽음을 분석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녀에게 관찰이라는 방법은 실체를 알 수 없어 모호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하나의 돌파구인 것이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자각하고 공포와 느끼지만 디킨슨은 지속적인 대면을 통해 죽음을 파악한다. 관찰을 통해 인식되어지는 죽음은 더 이상의 온기가 비 인격체이며, 정지의 상태로서 부동적인 특성을 지닌다.

디킨슨은 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자신의 죽음에 대한 사전연습을 한다. 죽음을 체험해보면서 이미 겪은 듯이 회상해보기도 하고 죽음의 순간부터 무덤 속에 시체가 안치 될 때까지의 과정을 상상해 보기도 한다. 더불어, 여인이나 친근한 존재로 의인화를 함으로써 더욱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친숙해 지려는 태도를 취한다. 다시 말해 디킨슨은 상상을 통한 죽음의 순간에 시간의 무의미성을 깨닫고 이를 통한 의식의 확장을 통해 시인으로서 추구하는 영원성의 의미를 얻게 된다.

### III. 불멸에 대한 인식과 추구

유한한 존재로 태어난 우리는 삶이 더욱더 이어지길 바라고 죽어서도 그 이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유한한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지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인식하고 있기때문에 영원한 불멸의 삶을 갈구한다. 불멸에 대한 관심은 디킨슨도 예외가 아니다. 즉, 디킨슨이 죽음의 신비를 벗기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불멸에 대한 그녀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녀는 죽음이 삶과 사후세계를 이어주는 연결부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종의 장면에서 불멸에 대한 암시와, 시신의 육체적 변화를 관찰하면서 영혼이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고자한다. 디킨슨은 상상적 죽음과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정지성과 부동성이라는 죽음의 속성을 파악하고 마찬가지로 정지성과 부동성의 인식에서 불멸의 탐구를 시작한다. 디킨슨은 불멸은 삶·죽음·영원을 연결시켜주는 존재로 보고 무덤을 불멸의 시작점으로 인식한다. 디킨슨은 무덤에 대한 탐구를 통해 공간적으로는 정지되고 밀폐되어 있는 반면, 안에는 광활함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의식의 확장을 통해서 우주의 천체적 순환과정을 인식하게 되고 죽음이란 수많은 삶의 과정 중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즉, 확장된 의식에 의해 삶에서 죽음 그리고 다시 삶으로 연결되는 순환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된다. 디킨슨은 확장된 의식과 끝없이 순환하는 자연,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사랑으로 자신만의 불멸을 추구하기에 이르며 이들을 시를 통해 고스란히 담아 영혼의 불멸을 추구한다.

#### 1. 불멸에 대한 인식

죽음이라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해답으로써의 불멸은 영원을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그 세계를 인식하는 한 인간을 완전한 시간 속에 살수있게 해준다. 디킨슨에게 불멸은 죽음이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단서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녀의 시와 편지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주제이며, 그녀의 작품가운데 어떤 주제보다도 강력한 상징을 만드는 힘이 된다.

정말로 불멸은 그녀의 수많은 시와 편지에 흘러넘치는 풍요로운 주제였다. 상식 있는 자들에게 논쟁을 불러일으킬 때조차도 그 상상의 힘에 도전하므로 그녀의 작품에서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시와 산문을 통해 돌파구를 찾은 듯하다.<sup>13)</sup>

13) Anderson, p. 251.

앤더슨이 언급했듯이 디킨슨은 시간의 흐를수록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짐을 인식하게 되면서 시간의 중요성과 삶의 의미를 고찰하게 된다.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연결부호로서 인간을 현세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계기가 된다. 디킨슨은 현재의 삶이 죽음을 거쳐 불멸로 이어진다고 파악한다.

다음 시 속에서 디킨슨은 죽음을 불멸로 들어가는 출구이자 관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진주란 바다에서 힘들게 얻어낸—  
다이버들의 보물입니다.  
날개 단— 천사들의 마차가  
우리들과— 여행을 갑니다.—  
밤은 어두움을 잃고—  
아침을 위해 캔버스를 남기고—  
죽음은, 현세의 녀를 잃게 하고  
불멸을 알게 합니다.

Pearls are the Diver's farthings  
Extorted from the Sea—  
Pinions—The Seraph's wagon  
Pedestrian once—as we—  
Night is the morning's Canvas  
Larceny—legacy—  
Death, but our rapt attention  
To Immortality. (P.7. 2연)

“진주”가 “다이버”들이 힘들게 찾아낸 값진 보물인 것처럼 불멸이라는 영원은 인간이 죽음의 바다 속에서 어렵사리 찾아낸 “진주”인 것이다. 즉 죽음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불멸을 안겨다 준다. “밤”이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캔버스”가 되듯이 “죽음” 또한 앞으로 다가 오게 될 영원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죽음은 현세를 잃고 영원한 삶으로 빠져들게 하는 관문이자 통로인 것이다.

디킨슨에게 불멸은 삶·죽음 그리고 영원을 맺어 주는 중간지점과 같다. 그래서 불멸에 대한 인식은 인간을 영원하고 완전한 삶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위해 디킨슨은 자신의 은둔에 대한 길을 선택한다.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에 어머니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 또한 위기의식을 벗어나 평생 동안 자신만의 공간을 추구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더 나아가 자신만의 불멸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을 구축하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디킨슨에게 시작 활동은 자신의 의식을 고취시켜 진정한 자아를 획득 할 수 있는 작업 인 것이다. 디킨슨이 시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는 그녀



자신의 의식세계를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19세기의 뉴잉글랜드의 암허셋트라는 사회 속에서 여러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그녀의 선택은 은둔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은둔은 자아 획득과 불멸추구를 위해 디킨슨이 선택했던 하나의 방법이다. 디킨슨은 사람이 죽음 후에 머무는 공간을 무덤을 통해 언급한다. 무덤은 외향은 좁지만 대조적으로 그 안에는 방대하고 광대한 영원의 삶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무덤”이 좁은 공간을 초월하여 죽은 이들이 앞으로 살게 될 영원의 세계를 향해 거치게 되는 중간지점으로 나타나 있다. 죽음이후의 세계로 상징되는 무덤은 안전성과 밀폐성이라는 이중성으로 집약된다. 무덤의 내부와 외부의 모습은 무덤의 정지성과 동시에 확장되어 나가는 의식을 우주적 순환과정에 비교된다. 무덤의 정지성은 무덤 밖의 천체의 순환의 움직임과 비교되면서 결국, 죽음은 우주의 순환 속에 한 점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된다. 디킨슨은 우주의 순환과정 속에서 죽음이란 한 점에 불과한 것임을 인지하며 죽음을 삶의 연속적인 과정의 일부로 인식한다.

다음의 시에서는 죽음은 각기 다른 모든 인간을 한순간 똑같이 먼지로 만들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삶과 연결시키고 있다.

원주가 충만해지고-  
오랫동안 제한되었던 무덤은  
자신의 생명의 특권을 주장하고-  
먼지는-연결하고-그리고 살아가도록-

Circumference be full-  
The long restricted Grave  
Assert her Vital Privilege-  
The Dust- connect- and live- (P.515)

그녀는 죽음이후의 세계가 완결된 “원주”의 영역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때의 “원주”는 죽음의 순간에 확장된 의식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디킨슨은 죽음의 영역에서 삶·죽음, 그리고 다시 삶으로 연결되는 순환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죽음의 공간인 무덤은 정지성의 공간인 동시에 무한한 공간으로 확장되는 의식의 “원주”를 구현하는 공간이다.

디킨슨은 또한 알프스 산맥에 의해서 가로 막혀 나뉜 “이태리”와 “스위스”의 이미지를 통해서 불멸과 삶의 관계를 묘사한다. 이처럼 그녀에게 천국과 지상세계의 구별은 불가능한 것이며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인지 지상에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이다.<sup>14)</sup> 알프스로 비유되는 죽음만 극복한다면 이 지상의 삶은

바로 영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지상의 삶과 영원의 삶은 연속체처럼 끊임없이 이어져 순환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디킨슨에게 죽음은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지상의 유한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자체인 것이다. 지상에서 자신만의 삶을 창조하여 의식을 확장하여 시를 통해 신처럼 전지전능한 “창조자”로써 역할을 함으로써 살아 있는 강력한 힘을 믿게 된다. 결국 죽음이후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죽음을 삶의 연속되는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게 된다.

## 2. 불멸의 추구

죽음의 과정 이후의 종착지인 천국을 통해서도 불멸의 획득 방법을 얻지 못한 디킨슨은 그 관심을 천상에서 지상으로 돌리게 된다. 디킨슨은 지상의 존재가 천상의 영원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보다는 의식의 확장을 통해 실제적 존재는 지상에 머물러 있지만 영혼은 우주 속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고 여긴다. 비록 이로 인해 광활한 우주속의 한 점으로 전락해버리지만 의식의 무한한 확장으로 천국보다 더 높은 우주에 도달할 수 있다. 디킨슨은 의식의 무한한 확장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 한계를 뛰어 넘고자 한다. 지상의 이미지를 통해 의식의 끊임없는 무한한 세계를 보여준다. 자아의식으로 상징되는 “뇌”는 불멸을 인식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뇌는 하늘·바다보다 높고 넓으며 자아의식의 무한한 확장을 통해서 신과 동등한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 디킨슨은 종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더 깊은 내부세계를 추구함으로써 신과 대등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디킨슨은 지상위의 유한한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디킨슨의 죽음에 대해 취하는 태도이다. 다음의 시에서 디킨슨은 유한한 지상적 삶 자체를 “힘”으로 인식한다.

살아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막강한 힘이지-  
실존 그 자체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한정한 힘이  
살아갈 수 있다면  
신의 경지 아니겠는가?

---

14) Ibid, p. 114.

비록 그 생명이 유한하더라도

To be alive- is power-  
Existence - in itself-  
Without a further function-  
Omnipotence- Enough-

To be alive- and Will!  
'Tis able as a God-  
The Maker- of Ourselves-be what-  
Such being Finitude! (P.677)

디킨슨에게는 중요한 것은 실존하는 그 자체이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한한 지상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시속에서 신처럼 전지전능한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무한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의식은 신조차도 자신의 밑에 두고 있다.

또한 디킨슨은 불멸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자아의 확대와 더불어 자연속의 생명력을 통해서도 불멸의 힘을 발견한다.

시속에서 죽음이 찾아오는 가을에 허공을 이리저리 떠다니는 씨앗들 속에서 불멸의 힘을 발견한다. 디킨슨은 떠다니는 씨앗들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라짐이 또한 다시 살아난다는 재생의 의미를 지님을 깨닫는다. 즉, 디킨슨은 자연의 생명력 속에서 불멸을 발견하고 더불어 신의 존재를 실감할 수 있는 이세상이 다름 아닌 천국이다<sup>15)</sup> 라고 믿는다.

디킨슨은 그 외에도 사랑을 통해서도 불멸의 힘을 확신한다. 사랑이란 생명보다 이전에 존재했고 죽음 뒤에 오는 것이다.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선은 사랑으로 인해 허물어지고 통합되어 인간이 한계를 뛰어넘어 불멸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인도자이며 창조의 원동력이자 즉, 지상의 삶을 대변 해줄 수 있는 요소인 것이다.

디킨슨은 무엇보다도 시의 예술세계를 최후의 불멸성으로 간주한다. 시를 통해서 불멸을 추구하는 태도는 아래의 시에 잘 나타나 있다.

장미정유는 —장미에서  
짜낸 것입니다—  
그것은 태양 —혼자서는 —짜낼 수 없는

15) Albert J. Gelpi, *Emily Dickinson: The Mind of the Poet* (Mass: Harvard UP. 1971), p. 80.

밀착 기를 거쳐 짜내는 선물입니다—

보통의 장미가 —시들 때—  
여인의 서랍속의 —이 장미는  
여름을 만들어 —그때 그 여인을  
불후의 로즈마리 속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Essential Oils — are wrung—  
The Altar from the Rose  
Be not expressed by Suns— alone—  
It is the gift of Screws—

The General Rose — decay—  
But this— in Lady's Drawer  
Make Summer — when the lady is  
In Ceaseless Rosemary— ( P. 675)

디킨슨은 인류의 영원한 주제인 죽음과 불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신만의 종교를 구축한다<sup>16)</sup> 디킨슨은 시 라는 자신만의 종교에 확장된 의식을 투영한다. 디킨슨이 시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는 “장미정유”(薔薇精油)라는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장미”라는 꽃은 자연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점점 시들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장미를 압축기를 통해 증류시켜 두면 “장미정유(精油)”는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 “보통의 장미가 시들 때” “장미정유”는 여인의 서랍 속에서 끊임없이 여기저기로 퍼져 나가 여름의 환희를 만들어 낼 수 있기에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디킨슨에게 자신만의 종교이자 미의 정수는 시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시는 시인의 정신적 고뇌 갈등을 통해 증류된 불멸의 로즈마리로서 그녀가 자연 속에 시간의 흐름에 의해 점점 늙어가 현세의 삶을 마감하게 될지라도 그녀의 고뇌의 산물인 시는 영원히 남아 후세에게 영속적으로 전해져 장미향유처럼 널리 퍼져 그녀의 의식만큼은 시속에 불멸의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

디킨슨은 죽음이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밝혀내고자 한다. 죽음 이후의 거처에 대한 호기심은 천국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불투명하고 모호하기만한 천국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지상의 삶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디킨슨은 죽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러한 정지된 순간에 의식을 무한히 확대시킴으로써 우주의 순환과정 속에 하나의 점으로 포착하여 죽음마저도 일부처럼 받아들인다.

디킨슨은 지상의 삶에서 자신만의 삶을 창조하고 의식의 확장을 통해 시를 통해 신처럼

16) Anderson, p. 260.

전지전능한 “창조자”로써 역할을 함으로써 무한한 “힘”을 갖게 된다. 또한 자연현상 속에서 한 존재가 사라짐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라짐이 있으면 새로운 탄생이 있는 것처럼 죽음은 끝인 동시에 다시 살아난다는 재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처럼 자연의 생명력 속에서 불멸을 발견하고 살아있는 것의 강한 힘을 얻게 된다. 디킨슨은 의식의 무한한 확장을 통해 우주의 순환과 끝없이 연속하는 자연의 흐름을 통해 죽음을 삶의 과정의 일부분임을 깨닫게 된다. 디킨슨에게 최후의 불멸성으로 간주되는 것은 예술세계이다. 예술은 미도 되지만 또한 영원불멸이기도 하다. 시인은 죽어도 작품은 영원토록 남아있듯이 디킨슨의 시는 바로 영원성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 IV. 결 론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한번은 죽음을 맞이하기 마련이다. 지상의 삶을 어느 순간 송두리째 앗아가는 파괴적인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저항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좌절하며 끊임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죽음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실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쳐야함을 알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내내 사람들을 고뇌하게 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죽음 후에 존재한다는 불멸의 삶에 대해 집착해 삶이 더욱 연장되어지는 징후를 발견하고 싶어한다. 죽음과 불멸의 주제에 대한 관심은 디킨슨도 예외는 아니었다. 디킨슨이 반생애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며 끊임없이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 할 수 있던 원동력은 죽음과 불멸의 주제에 대한 시를 창작 하는데에 있다. 두 주제에 대한 시가 그녀의 작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디킨슨의 시에 나타나는 죽음의 인식 과정은 그녀의 삶의 과정에서 겪은 직·간접적인 죽음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주변사람들을 잃은 상실감은 그녀가 죽음에 대해 끝없는 관심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그녀의 집 주변에는 많은 공동묘지가 있다는 지리적인 이유도 그녀가 타인의 죽음과 장례식 그리고 시신의 운구과정에 끊임없이 노출되도록 한 요인이 된다. 더불어 디킨슨의 죽음과 불멸에 대한 시들은 종교적 고민의 소산이기도 했다. 디킨슨은 신이 가져다 준다는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현세의 삶을 극기사상으로 죄인처럼 살아야한다는 점에 종교적 회의를 느끼게 된다. 청교도주의에 대한 회의는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다. 죽음이란 사후세계의 삶의 시작이기에 디킨슨에게는 자세히 관찰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관찰을 통해 죽음의 순간에 사후세계를 인식할수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그녀는 죽음을 마치 현미경을 대고 있는 듯이 정

확하게 관찰하는 자세를 취하여 죽어가는 이의 시신의 관찰을 통해 죽음이후의 세계까지도 포착하려 한다. 이러한 타인의 죽음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인간은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 디킨슨은 이러한 죽음을 막연히 의식의 소멸로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한한 삶의 과정 속의 정지된 순간으로 본다. 이 순간에 의식의 확장을 통해 삶과 죽음사이의 끊임없는 순환과정을 깨닫게 된다. 이때 죽음은 삶의 연속과정에 놓여있는 하나의 과정이며 끝이 아니라 삶을 강화시키고 영원의 순간으로 연결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물리적·육체적 소멸의 과정을 인지하게 된다. 정지성으로 인식되는 죽음의 속성이 물리적 시간과 공간을 무의미하게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디킨슨은 그 순간에 자신의 의식을 상상력을 통해 무한대로 확장시킴으로써 죽음의 인식 순간을 시를 통해 담아내어 예술적 비전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디킨슨이 죽음에서 얻어 내는 상상력의 에너지는 죽음을 그자체로 인식할 때만 획득된다. 이는 죽음이 수반하는 고통 또한 감내하고 받아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은 유한한 지상적 존재임에 대한 깨달음이자 숨길 수 없는 것이기에 디킨슨은 죽음을 현실 속에 나타나는 자신의 경험처럼 인지하게 된다.

죽음의 고통은 소멸과 상실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빈 공간으로 표현되는 무의 공간은 고통을 통해 시간적 개념이 지워진다. 바로 이때 순수한 영역 속에서 확장되는 의식의 확장을 통해 유한성을 인식하게 된다. 더불어 디킨슨은 자연의 순환과정을 통해 죽음이란 광활한 우주의 순환 속에 한 점 일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보편적인 한 부분이자 자연현상의 일부로 포착하여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드린다. 그리하여 자신의 유한성을 느낄 수 있는 현세에서의 지상의 삶을 더욱더 선호하게 된다.

또한 죽음이후에 디킨슨이 머무르게 될 공간에 대한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불멸의 시작점으로 연결되며, 동시에 죽음과 불멸을 이어주는 중간지점을 의미하는 무덤을 탐구하게 된다. 그녀는 무덤속의 정지의 순간에 자아를 무한히 확대함으로써 무덤밖의 순환하는 우주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인식한다. 이때의 죽음이란 삶의 과정을 지나가는 통로가 되며 이 곳을 지나갈 때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디킨슨은 죽음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있으며 이때 죽음은 삶의 전체적 과정으로서 끊임없는 영원을 포함하는 순간이다.

디킨슨은 무엇보다도 시의 예술세계를 최후의 불멸성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시인이란 일상적인 것들로부터 놀랄만한 의미를 추출해내 곧 사라지게 될 유한하고 평범한 것들로부터 훌륭한 장미정유(薔薇精油)를 정제해 내는 기술자로 규정한다. 디킨슨에게 시인의 임무는 창조주의 천지창조만큼이나 위대한 것이고, 동시에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시작에만 전념한 점에서 가장 자신의 소명에 충실한 시인이다. 일생동안 끊임없는 정신적 고뇌를 하면서 청교도주의, 초월주의에 영향을 받았으나 전적으로 의존 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만

의 내적자아 추구의 도구로 시를 선택하여 무한한 자아의식의 확대로 자신만의 종교인 시를 통해 불멸을 획득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그녀의 시는 모든 세대를 초월하는 장미정유(薔薇精油)처럼 많은 세대들에게 퍼져 불멸의 노래로 남아있을 것이다.

## Bibliography

### 1. Primary Reference

Dickinson, Emily. *The Complete Pomes of Emily Dickinson*. Ed. Thomas H. Johnson. London: Faber & Faber, 1970.

\_\_\_\_\_. *The Letters of Emily Dickinson*. Ed. Thomas H. Johnson & Theodora Ward. Cambridge: Harvard UP, 1958.

### 2. Secondary Reference

Anderson, Charles R. *Emily Dickinson's Poetry: Stairway of Surpris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Bianchi, Martha Dickinson. *The Life and Letters of Emily Dickinson*, Mass: Houghton Mifflin Co., 1924.

Bloom, Harold. *Emily Dickinson*. Ed. New York: Chelsea House P. 1985.

Alexander, Charlotte. *The Poetry of Emily Dickinson*. New York: Monarch P. 1965

Cameron, Sharon. *Lyric Time: Dickinson and the Limits of Genre*.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9.

\_\_\_\_\_. *Choosing Not Choosing: Dickinson's Fascicles*. Chicago: U. of Chicago P. 1992.

Dores, Dyer Lucas. *Emily Dickinson and Riddle*. Dekalb: Northern Illinois UP, 1969.

Emerson, Ralph Waldo. *Selections from Ralph Waldo Emerson: An Organic Anthology*. Ed. Stephen Em Whicher.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0.

Ferlazzo, Paul J. *Emily Dickinson*. Boston: G. K Hall & Co., 1976.

\_\_\_\_\_. *Critical Essays on Emily Dickinson*. Boston: G. K. Hall & Co., 1984.

- Ford, Thomas W. *Heaven Beguiles the Tired: Death in the Poetry of Emily Dickinson*. Alabama: Alabama UP, 1968.
- Gelpi, Albert J. *Emily Dickinson: The Mind of the Poet*. New York: The Norton Library, 1971.
- Griffith, Clark. *The Long Shadow: Emily Dickinson's Tragic Poetry*. New Jersey: Princeton UP, 1964.
- Heidegger, Martin. *Existence and Being*. Ed. Werner Brock. Chicago: Regnery, 1949.
- Johnson, Thomas H. *Emily Dickinson: An Interpretive Biography*. Mass: Harvard UP, 1955.
- Juhasz, Suzanne, (ed.) *Feminist Critics Read Emily Dickinson*. Bloomington: Indiana UP, 1983.
- Kimpel, Ben. *Emily Dickinson as Philosopher*. New York: The Edwin Mellon P. 1981.
- Loving, Jerome. *Emily Dickinson: The Poet on the Second Story*. Cambridge: Cambridge U.P., 1986.
- McNail, Helen. *Emily Dickinson: Monarch of Perception*. Mass : Mass UP, 2000.
- Miller, Cristanne. "How Low Feet Stagger" in *Feminist Critics Read Emily Dickinson*. Ed. Suzanne Juhasz. Bloomington: Indiana UP, 1983.
- Pickard, John B. *Emily Dickinson: An Introduction and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on, 1967.
- Sewall, Richard B. *The Life of Emily Dickinson*. Cambridge: Harvard UP, 1968.  
\_\_\_\_\_. *Life of Emily Dickinson*. Mass: Harvard UP, 1994.
- Seycrested Brita Lindberg, *The Voice of the Poet : Aspects of Style in the Poetry of Emily Dickinson*. Mass: Harvard UP, 1968.
- Smith, Martha Nell. *Rowing in Eden: Reading Emily Dickinson*. Austin: Texas UP, 1992.
- Tate, Allen. *On the Limits of Poetry*. New York: The Swallow Press and William Morrow & Company, Publishers, 1948.  
\_\_\_\_\_. *Six American Poets: from Emily Dickinson to the Present*. Minneapolis: Minnesota UP, 1969.
- Waggoner, Hyatt H. *American Poets: From the Puritans to the Pres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8
- Whicher, George F. *This Was a Poet: A Critical Biography of Emily Dickins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8.



- 강은교. 『한글기 겨울빛이 비스듬히』, 서울 : 민음사, 2003.
- 김명옥. 『세상에 보내는 나의 편지』, 서울 : 해원출판사, 1996.
- 김재현. 『영미시의 이해』, 서울 : (주)외국어연수사, 1999.
- 이창배. 『현대 영·미시 해석』, 서울 : 탐출판사, 1995.
- 강민숙. 『Emily Dickinson의 시에 나타난 양면성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0.
- 김은영. 『에밀리 디킨슨 시에 나타난 죽음의 인식과 시적 비전』,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1999.
- 김주란. 『Emily Dickinson의 죽음에 관한 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6.
- 박향선. 『Emily Dickinson 시에서의 자아표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80.

